

학기 초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과목을 수강신청하면서 아시아 공동체라는 단어를 처음 봤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어도 아시아 공동체의 정체성은 생소했다. 사실 한 학기 내내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왔지만 지금도 아시아 공동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시아 공동체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라 나아가자고 하는 길이다. 아시아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란 얘기가 아니라 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아시아 공동체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면서 더 나은 삶을 찾는 과정 속에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 데 있다.

아시아 공동체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자꾸 구체적인 무엇인가만을 강조하는, 어떻게 만들 강조하는 강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떨 때는 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명분일 뿐인가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 해결책으로서 아시아 공동체를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대학 강의이고 수강생이 많은 수업이기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질문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면서 아주 뜨거운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수업 방식이 처음부터 전문가의 발제 후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는 방식이었어도 학생들의 참여는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질문 점수로 인한 대학생으로서 정체성에 대해 자괴감을 갖고 참여를 안 하는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발제와 토론의 형식 수업이면서 질문 점수가 없는 수업이면 아마 학생들은 활발한 참여를 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두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시아 공동체가 가능 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둘째 아시아 공동체가 필요 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먼저 아시아 공동체 이전의 조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아시아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이 유럽 공동체다. 유럽은 경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아시아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를 보면 산업혁명 제국주의 등의 역사적 변수들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차치하고서 긴 시간 논의가 있었다. 이미 유럽은 하나였다는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로서 공통분모가 있었다. 또한 넓은 차원의 논의가 가능한 각국의 정치 상황이 있었다.

반면 아시아를 보면 아시아란 지리적 개념이 내포하는 국가들은 아시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아시아란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서구 유럽과 미국을 포함하는 20세기 강대국들의 규정에 따라 개념을 사용한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각국의 정치 상황이 권위주의 속에 있거나 권위주의를 탈피한지 얼마 되지 않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넓은 차원의 논의가 아직 한 나라 안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아시아 국가들의 제 1의 목표는 경제성장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지 않겠느냐 만은 특히 영미형 자본주의가 정착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20세기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목표다.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아시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이제 성장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과연 필요한 개념일까. 아시아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주장하는 개념이라면 이제 성장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마치 개도국에게 환경 문제를 신경 쓰라는 선진국들의 압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아시아 강대국들은 아시아 공동체를 자기 국가의 이익 또는 문제 해결책으로 사용하지 진정한 공동체 의식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시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할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 중에 상당히 오래 전에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뛰어난 문명과 경제력을 가졌었다는 강의도 있었다. 서구로 주도권이 넘어간 것은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등장한 체제인 자본주의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세상이 온 것이다.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또 다시 변화가 있을 다른 세상이다. 이전 2차, 3차 산업혁명 때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즉 변화가 생기기엔 아직 따라가기 바쁜 시기였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도 21세기 들어서면서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 못하면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에 있다. 이미 실업률과 성장률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어 현재보다 더 심한 소득 불평등을 만들어 낼 일종의 움직임이다. 경제력이 그리 크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력이 큰 국가들 사이에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 한 나라 안에서도 나라 경제에 대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개별 국가의 대다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국가를 넘어 아시아 공동체가 구성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보장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대체 자본주의의 승리자들이 왜 패배자를 챙겨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표되는 모든 의구심들은 단순히 도덕만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계속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국가, 특히 복지국가 라는 점에서 해결된다. 이미 대공황, 08년 금융위기 등의 구조적 위기 때에는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실증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즉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위축되고 역량이 사라진다면 현재 구조는 지속되기 힘들다. 불평등이 가속화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역할을 하는 조직 또는 정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아 공동체는 역사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다.

아시아 공동체가 현실에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아직 국가는 건재하고 국민국가 경계 밖의 정체성은 없다. 그러나 아시아 공동체는 필요에 의해 등장한 개념이다. 아시아 공동체는 개별 국가의 경제 침체를 해결할 돌파구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대화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아 공동체는 필요하지만 와 닿지 않는다. 방법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 완성된 모습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가야 한다. 국가의 수장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해결은 절대 안 된다.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경제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민들이 모르게 결정하고 발표만 한다는 식의 엘리트주의적이고 상향식인 생각과 방식으로서는 절대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더라도 필요성을 다수가 느끼면 방법과 방향은 대화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공동체지만, 물음표다.